

## 임진왜란 직후 조·일 갈등해결을 위한 승려들의 활약

이 철 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 【요 약】

---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해부터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는 사신을 보내고 잡아간 조선인들을 송환하면서 조선에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우호관계가 깨어졌으며, 일본과의 강화는 명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조선에 주둔한 명나라 관리들은 일본과의 화친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만 조선의 군신들은 명나라를 핑계되며 일본과의 강화를 미루었다. 여러 차례 사신과 조선인들을 보냈지만 교역을 허락하지 않자 다급해진 대마도주는 조선에 주둔한 명나라 관리에게 일본에 잡혀있던 명나라 첩자를 돌려보내며 조선과 화친하도록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협했다. 1604년 조선은 대마도와 교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사정을 탐색할 필요를 느끼고 수년간 미루며 보내지 않았던 유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은 일본의 갈등을 해소할 가장 적합한 인물로 승려인 유정을 선택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치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치유를 위해서는 상호이해, 호감과 존중, 의사소통, 꿈 이루기, 공유된 인식과 같은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인을 두루 갖추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할 이들이 바로 두 나라 승려들이었다. 유정과 일본승려들은 정치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했지만 종교적으로는 함께 불교를 수행하는 동지였다. 조선은 승유억불정책으로 승려의 신분이 미천했으나 일본은 천황과 막부가 불교를 신앙하고 승려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임무를 하는 등 승려를 존경했다.

유정이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이 불교와 승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일본의 실권자인 기요마사와 이에야스가 불교를 가까이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정과 일본 외교승들의 신뢰와 동질성이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사명당 유정, 소 요시토시(宗義智),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게이테츠 겐소(景轍玄蘇), 세이쇼 쇼타이(西笑承兌), 슈쿠로 가쿠(宿薦俊岳), 산요 겐기츠(三要元估)

---

## I. 들어가는 말

1592년 음력 4월 14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558-1600)가 이끄는 선봉대가 부산포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가 죽자 끝이 났다. 1598년 11월 19일 유키나가가 마지막으로 부산을 떠나면서 7년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조정과 백성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심과 원한에 치를 떨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부터 대마도는 조선과의 교역을 요구했다. 대마도는 경작지가 적고 쌀은 수확되지 않으므로 조선무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마도주 소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는 사신을 보내고 잡아간 조선인들을 송환하면서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현실에서 그 누구도 일본과의 강화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다급해진 대마도주는 조선에 주둔한 명나라 관리에게 일본에 잡혀있던 명나라 첩자를 돌려보내며 조선과 화친하도록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며 위협했다.

1600년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승리하여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도 조선과의 강화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조선은 임시방편으로 일본의 거센 강화요청을 무마하고 일본을 탐적할 목적으로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을 국서를 가진 정식 사신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대마도에 파견했다. 유정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이 사실을 이에야스에게 통보하고 이에야스는 유정을 교토(京都)로 불러 담화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은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조선은 1607년에는 이에야스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끌려간 동포들을 쇄환하기 위한 사신을 보냈다. 이후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 260년간 안정과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는 외교를 직접 수행한 이는 조선승려 사명당 유정과 일본 외교승들이었다. 이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 내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요마사와 이에야스가 독실한 불교신자인 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의 갈등해결에 있어 유정과 일본 승려들의 활약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임진왜란 후 조·일 갈등<sup>1)</sup>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의 골은 매우 깊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선에 쳐들어와 전국토를 초토화하고 백성을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10만 명을 잡아갔다. 조선인에게 일본은 철천지원수였다. 그럼에도 대마도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듬해부터 사신과 함께 끌려간 조선인을 송환하면서 끈질기게 교역을 요구했다. 이에야스의 명이라며 사신을 보내 강화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협박까지 했다. 조선으로서는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대마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과 일본은 강화요청과 거부로 갈등하고 있었다.

### 1. 일본의 강화요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599년부터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사신과 함께 잡아간 조선인들을 송환하면서<sup>2)</sup> 조선과의 강화를 요청했다. 대마도 안에서는 쌀을 거의 얻을 수 없고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對馬藩으로서는 조선과의 무역이 중세 이래 불가결한 일이었다. 그런데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無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무엇인가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3)</sup>

대마도 소(宗)가는 강화교섭을 위해 선조 32년(1599) 가케하시 시치다유(梯 七太夫)에게 서신을 주어 조선에 보냈으나 명나라 군에 잡혀 돌아오지 못했다. 이어서 요시조 에키곤(吉副左近)을 보냈으나 또한 돌아오지 못했다.<sup>4)</sup> 다음 해에는 유타니 야쓰게(柚谷弥介)를 보내 강화교섭을 시도했으나 돌아오지 못했다.<sup>5)</sup>

그러자 요시토시는 일본에 잡아둔 明의 첩자 셋을 명나라로 돌려보내면서 조선 예조로 보내는 서신도 함께 보내 명나라가 조선과의 화친에 힘써 주기를 바랐다.

- 
- 1) 임진왜란 후 조·일 갈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논문 「사명당 유정의 강화활동을 통해 본 조·일 갈등과 치유」, 『불교학보』81(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에서 일부분 인용했다.
  - 2) 1599년 6월에 鄭喜得를 비롯한 19명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잡아간 조선인들을 송환했다. 고려시대부터 한반도에 들어온 왜구들은 식량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이는 훗날 교역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이었다.
  - 3) 山本博文, 『對馬藩 江戸家奴』(東京: 講談社學術文庫, 2015), p.18
  - 4) 永留久恵, 『對馬島志』(長岐: 對馬島志刊行委員會, 2014), p.217
  - 5) 山本博文, 앞의 책, p.17

선조 33년(1600) 2월에 대마도주 요시토시와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테라사와 마사나리(寺沢正成)와 함께 조선 예조에 서한과 조선침략 때 연행해 온 조선인 160명을 보내 강화 사절을 일본에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sup>6)</sup> 아울러 ‘사신 한 사람이 칙서 한 통을 가지고 온다면 명의 신하와 조선의 많은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글을 보냈다.<sup>7)</sup> 4월에도 다치바나 토모마사(橘智正)를 파견하면서 300명을 송환했다.<sup>8)</sup>

1600년 9월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승리한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조선과의 강화에 의욕을 나타내자 대마도가 진행해온 조선교섭에도 탄력이 붙었다.<sup>9)</sup> 이에 야스는 임진왜란은 모두 이미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탓이며 자신은 침략에도 나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요토미 일족을 몰아냈으며 조선과 외교 복원을 요청했다. 이에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조선은 일본의 가장 가까운 나라이므로 서로 선린관계를 맺음이 도리다. 둘째 임진왜란에 의해 형성된 조선·명과의 연합적 군사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교섭의 중요한 목적이며 또한 조선과 강화하여 사신 왕래가 가능해진다면 일본 국내외에 태평이 초래할 것이다. 셋째 조선과의 好隣체결로 그 나라의 내정을 살필 수 있고, 더욱이 일본의 武勇도 조선에 전해질 것이므로 나라를 길이 보전하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대마도주는 선조 34년(1601) 6월에 잡아왔던 현감 남충원(南忠元)을 비롯한 250명을 보내와 강화를 청하고, 11월에도 토모마사를 보내 화의하기를 독촉하며 공갈 위협까지 했다. 비변사에서는 ‘중국조정의 처분이 있어야만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답을 했다.<sup>11)</sup> 선조 35년(1602) 7월 10일에 경상감사 이시발이 토모마사가 온 사실을 아뢰고 있고<sup>12)</sup>, 12월에도 토모마사가 왔다. 선조 36년(1603) 6월에는 잡아간 조선인 129명을 보내왔다.

대마도에 잡혀있던 김광(金光)은 1604년 2월 13일 귀국한 뒤 2월 27일에 상소를 올려 다이아 시게노부(平調信)가 화친을 청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이 군사를 출동시켜 침략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sup>13)</sup> 그리고 함께 온 토모마사가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 이에야스의 명이라면서 강화를 강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임진왜란과

6) 위의 책, pp.17-19 참조

7) 『선조실록』122, 선조 33년 2월 24일(무술)

8) 志岐隆重, 『十二回の朝鮮通信使』(長岐: 長岐文獻社, 2014), p.32

9) 永留久恵, 앞의 책, p.217

10) 민덕기, 「조선후기 조·일강화와 조·명관계」, 『국사관논총』12(국사편찬위원회, 1990), p.171

11) 『선조실록』143, 선조 34년 11월 24일(무오)

12) 『선조실록』152, 선조 35년 7월 10일(기사)

13) 『선조실록』171, 선조 37년 2월 27일(무신)

같은 변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임진왜란으로 조선과의 교역이 끊어지자 다급해진 대마도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고 매년 잡아간 조선인을 송환하며 성의를 보였다. 그리고 대마도주는 대마도에 잡아둔 명나라 첩자를 명나라에 돌려보내면서 조선과의 교역에 힘써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러 해 동안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진척이 없자, 이에야스의 뜻이라며 사신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면 협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 2. 조선의 대응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난 다음해인 1599년부터 거듭되는 대마도의 강화요청에도 조선의 군신들은 일본과의 화친을 원하지 않았다. 明의 經理 萬世德은 諭帖을 조선에 보내 ‘다시 사신을 보내면 해상에서 곧바로 참수한다고 하면서 사신을 우선 돌려보내는 게 어떤가?’ 하면서 일본 사신을 처리하는 걸 조선에 물었고 조선에서는 북경으로 압송해야 하고 결코 놓아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sup>14)</sup> 그리고 明의 遊擊 姜良棟이 時御所에서 회례하면서 “일본 사신을 죽이거나 돌려보내거나 遼陽으로 들여보내거나 모두 왕의 처분 여하에 달려 있으니 지시해 달라.”고 하자 선조는 “죽이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돌려보내면 그가 우리의 허실을 알아 반드시 사실을 누설할 것이니, 遼陽으로 압송하여 천조의 처치를 기다리겠소이다.”라고 했다.<sup>15)</sup>

명나라는 일본과의 화친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sup>16)</sup> 대마도주 요시토시가 1599년 일본에 있던 明의 첩자를 돌려보내자 明의 經理 萬世德은 揭帖과 일본에서 보내온 글을 조선에 보냈다.<sup>17)</sup> 이에 조선에서는 ‘2백 년 동안 분쟁 없이 지내다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魚肉이 되게 했으니 그대들이 배신한 것이다. 명나라 황제의 처치를 따를 뿐이라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일본이 보낸 사신들은 명나라 장수가 데리고 가 명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을 만들어 대마도에 회답했다.<sup>18)</sup>

선조 33년(1600) 5월 초 명나라 通判 沈思賢도 揭帖을 보내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14) 『선조실록』116, 선조 32년 8월 17일(계사)

15) 『선조실록』116, 선조 32년 8월 18일(갑오)

16)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는 구원군을 파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군대와 군량을 지출했다. 이 기회를 틈타 북방에서는 누르하치가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누르하치가 여진 부족들을 통합해 만주국을 세우고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기에 명나라로서는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했다.

17) 『선조실록』124, 선조 33년 4월 14일(정해)

18) 『선조실록』124, 선조 33년 4월 16일(기축)

도 않고 원망을 맺어 허물을 부르고 분쟁을 야기하다 저들이 쳐들어오게 되어 이러쿵 저러쿵 시끄러운 말이 잇따라 올라가면 황제가 일시에 진노할까 염려되며 이때 귀국은 무슨 말로 변명하겠으며,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귀국 사람들이 일본과는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말은 국왕의 일시적인 계획을 위한 것이고 일시적인 작은 분노입니다.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은 끝까지 잘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왕의 천백 년 대계를 위한 것이고 만세에 빛나는 큰 용기입니다. 국왕께서는 이 말씀을 재삼 새기시고 속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시어 원대한 생각과 깊은 꾀를 내시고 기밀을 감추고 드러내지 마시어 나라의 치안이 영원히 보존되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는 내용을 보내 일본과 화친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선조는 ‘왜적과 화해하는 것은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sup>19)</sup>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의 관리들은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일본과 강화를 모색하기 바랐지만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침략의 선봉을 맡은 대마도의 강화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잡혀간 조선인을 송환하면서 강화를 거듭 요청하는 대마도의 성의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다. 조선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일본의 거센 강화요청을 무마하고자 했다.

1600년 9월 1일(신축) 비변사에서 대마도에 보낸 답서를 논의하면서 ‘이전에는 여러 차례 우호를 청하며 계속해서 글을 보내와 정성이 있는 듯하다. 이제 만일 끌려간 사람들을 모두 쇄환시켜 성의를 보인다면 본국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sup>20)</sup>라고 했다. 끌려간 동포 쇄환에 성의를 다하면 그 대가로 교역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대마도의 강화요청에 선조 35년(1602) 1월 17일에 도체찰사 이덕형은 “대마도에 사람을 보내 정탐하는 일은 급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전날에 적의 서신에 답할 때 이미 ‘명나라의 회답하는 말을 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차는 이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원이 있으면 말을 만들기 어려우니 전에 아뢴 대로 유정이름으로 글을 써서 보내야 합니다.”<sup>21)</sup>하고 말했다.

1603년 4월 예조에서는 ‘대마도의 정성을 잘 알고 있으며 명나라에 사실대로 알려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라. 사신 토시마사가 여러 차례 사람을 돌려보냈으므로 감사하는 뜻에서 쌀을 주어 돌려보낸다.’는 서신을 보냈다.<sup>22)</sup>

선조 37년(1604) 3월 12일자 비망기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유정과

19) 『선조실록』125, 선조 33년 5월 4일(병오)

20) 『선조실록』129, 선조 33년 9월 1일(신축)

21) 『선조실록』145, 선조 35년 1월 17일(무신)

22) 『선조실록』161, 선조 36년 4월 2일(무자)

손문옥(孫文燾)을 대마도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왜적의 使者에게 전달했으나 여러 해를 미루며 보내지 않고 있었다.<sup>23)</sup>

1604년 2월 13일 대마도로부터 돌아온 김광(金光)이 상소를 올려 화친을 허락하지 않지 않으면 일본이 군사를 출동시켜 침략할 것이라 말하고, 함께 온 토시마사도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이라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변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선은 일본의 사정을 탐색할 探賊使를 보낼 필요를 느끼고 수년간 미루며 보내지 않았던 유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 Ⅲ. 일본 실권자들의 불교신앙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신진사대부들이 승유억불정책을 주장해 불교를 탄압하고, 승려들의 지위는 낮았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원은 한정되었고, 그 외 사찰이 소유한 땅과 노비는 몰수당하고 많은 사찰들이 파괴되었다. 세조대와 명종대 문정대비의 불교신앙으로 불교가 잠시 부흥하다 문정대비가 죽자 불교는 다시 탄압을 받았다.

조선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불교가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천황을 비롯한 장군들과 백성들이 모두 불교를 신앙하고 승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실권을 가진 가토 기요마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모두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 1. 가토 기요마사

임진왜란 당시 제1군을 이끌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천주교인으로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노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0년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이에야스와 맞서 서군(西軍)의 장수로서 참가했다 패배하여 효수를 당했다.

제2군을 이끌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는 어머니 이토(伊都)의 영향으로 열렬한 니치렌슈(日蓮宗) 신자였다. 軍旗에도 ‘南無妙法蓮華經’이라는 글씨를 적었다.<sup>24)</sup> 임진왜란 당시에는 닛신(日眞)과 세이칸(淸韓) 등의 승려를 대동하여 승전을 기도했다. 서생포에 주둔하고 있을 때 유정과 3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유정

23) 『선조실록』172, 선조 37년(1604) 3월 12일(임술)

24) 『淸正公展』자료집(鶴屋, 昭和 44), p.2

의 인품과 법력에 감화를 받았다. 첫 번째 회담에서 기요마사는 종이 10여 장을 보내와 유정의 글씨를 받아 갔다. 기요마사가 일본에 들어가 유정의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일본인들이 유정의 명성을 알게 되었다.<sup>25)</sup>

임진왜란이 끝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측근이 되어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가 싸운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 참전하여 고니시 유키나가의 우토쥬(宇土城)를 함락시켰다. 이후 구마모토(熊本)의 영주가 되어 구마모토 성을 축조하고 정치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기요마사는 1585년 오사카(大坂)에 부친의 명복을 위해 혼묘지(本妙寺)를 세우고 닛신(日眞)을 초대 주지로 삼았다. 1600년 기요마사가 구마모토(熊本) 영주에 봉해지자 혼묘지를 구마모토로 옮겼다. 1602년에는 모친의 3주기를 맞이하여 모친의 묘소에 죠코지(妙永寺)를 건립했다.

기요마사는 조선에게 데려간 소년들을 자신이 믿는 일련종의 승려로 만들기도 했다. 1592년 9월 회령에서 국경인(鞠景仁)이 임해군(臨海君, 1572-1609)과 순화군(順和君, 1580-1607) 일행을 포박해 기요마사에게 넘겼다. 1593년에 인질로 일본으로 끌려간 임해군의 4세 된 아들은 13세(1601)에 후쿠오카 훗쇼지(法性寺)에서 출가해 법명이 니치엔(日延, 1589-1665)이었다.<sup>26)</sup> 니치엔 상인은 16세에 교토의 대본산 혼고쿠지(本國寺)의 구호우단린(求法檀林)에서 3년간 배우고, 종문 최고 학부의 하나인 치바현 북부에 있는 한코우단린(飯高檀林)으로 옮겨 학덕을 겸비했다.<sup>27)</sup> 가또 기요마사는 니치엔 상인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었다.

1593년 경남 하동에 살던 13살의 여대남(余大男, 1580-1659)이 기요마사의 부하에게 잡혀왔다. 기요마사는 소년의 비범함을 알고 구마모토로 데려와 일련종 승려로 출가시켰다. 니치요(日遙) 상인은 구호우단린(求法檀林)과 한코우단린(飯高檀林)에서 수학하고 1609년에 기요마사의 원찰인 혼묘지(本妙寺)의 3대 주지가 되었다. 1614년 구마모토에 있던 혼묘지가 화재로 소실되자 니치요가 기요마사의 묘지가 있는 나카오야마(中尾山)로 옮겼는데 이것이 오늘날 혼묘지다. 1617년 조선쇄환사가 왔을 때 일행 가운데 하동의 관리가 니치요를 만나고 귀국하여 부친 여수복(余壽福)에게 아들이 일본에 생존함을 알렸다. 부친과 주고받은 서신이 혼묘지에 남아있다.

25) 사명당 유정은 임진왜란 이후 자신을 송운(松雲)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일본인에서는 송운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26) 일본 기록(水上泰信, 『可觀院日延上人と香正寺緣起』, 香正寺)에는 니치엔이 임해군의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선조실록』에는 임해군의 아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진위여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선조 18년(1585) 4월 17일(무오)에 임해군이 허명(許銘)의 딸을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허위라고만은 할 수 없다.

27) 원영상, 「선조왕손 일연상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사연구』6(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p.80에서 재인용. 水上泰信, 『可觀院日延上人と香正寺緣起』, 香正寺

## 2.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이에야스는 선조 대대로 정토종 신자였으며 염불하여 저 세상에 구원받는 불교에 귀의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죽은 뒤에 성불하기만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현세 이익을 바라는 천태종 신앙자로 볼 수 있다.<sup>28)</sup>

이에야스는 덴카이(天海, 1536-1643)에 귀의해 천태종의 간에이지(寬永寺)를 도쿠가와 쇼군 집안의 기도사원으로 삼았다. 덴카이는 동북 아이즈(會津) 지방 출신으로 천태종 승려다. 이에야스 만년의 御前論義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 이에야스가 죽은 뒤 그를 산왕일실신도(山王一實神道)에 따라 토우쇼콘젠(東照權現)이라는 신으로 삼고 닛코(日光)의 토우쇼구(東照宮)에 이에야스를 모셨다.<sup>29)</sup>

만년의 이에야스는 거의 매주 승려를 불러 불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심할 때는 2일에 한번 꼴로 논의를 들었고, 2대 쇼군인 아들 히데타다 역시 자주 동석했다.<sup>30)</sup> 이에야스는 불교논의의 논제를 지정하기도 하고 논의형식에 대해서도 말할 정도로 불교 교학에도 밝았다.

이에야스가 말년에 불교논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승려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거나 사원 세력의 내부를 간섭하기 위해서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소네하라 사도시(曾根原理)는 이에야스의 문화적·종교적 카리스마를 확립하려는 특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1)</sup>

일반적으로 전국시대의 무장은 고도의 불교교학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었고 관심도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야스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 IV. 조·일 승려들의 갈등 조정

조선과 일본은 오랫동안 왜구 문제로 갈등해왔다. 조선은 매년 歲賜米를 대마도에 주고, 三浦를 열어 교역을 허가하고, 通信·回禮라는 이름으로 교토(京都)에 사신을 보냈으며, 일본은 日本國王使로 교토(京都)의 五山<sup>33)</sup> 승려들을 조선에 보내 갈등을 해소

28) 曾根原理, 『神君家康の誕生』(吉川弘文館, 2008), pp.85-86

29) 曾根原理, 「송운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명대사국제학술대회자료집』(밀양표충사, 2017), p.34

30) 위의 자료집, p.33

31) 曾根原理, 앞의 책, p.46

32) 위의 책, p.52

33) 京都에 있는 臨濟宗의 다섯 큰 절. 덴류지(天竜寺)·쇼코쿠지(相国寺)·켄닌지(建仁寺)·도후구지(東福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갈등은 매우 깊어졌고 어느 누구도 조정을 시도할 수조차 없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치유가 필요하다.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심리학·사회학·정치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신뢰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중점을 두어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가능케 하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4)</sup>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 호감과 존중, 의사소통, 꿈 이루기, 공유된 인식과 같은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인을 두루 갖추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해 준 이들이 바로 두 나라 승려들이었다. 유정과 일본승려들은 정치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했지만 종교적으로는 함께 불교를 수행하는 동지였다.

## 1. 사명당 유정

임진왜란으로 악화된 조선과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승려인 사명당 유정이다. 문정대비가 부활한 승과에 18세에 급제하여 사대부들과 시문을 나누며 우의를 가졌으며, 청허 휴정의 문하에서 心印을 얻었다.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임진왜란을 당하자 의승장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서생포 적진에 들어가 기요마사와 3차례에 걸쳐 회담을 했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일본승려들과 함께 중군했다. 유정은 서생포 적진에서 일본승려 닛신(日眞)을 비롯하여 자이덴(在田)과 덴유(天祐)를 만났으며, 1597년 네 번째 적진에 들어갔을 때는 일본승려 세이칸(淸韓)과도 만났다.

기요마사의 적진으로 유정을 파견한 것은 명나라 도독인 류정(劉綎)의 지시에 따라 권율이 추천했는데<sup>35)</sup>, 권율(權慄)이 기요마사가 독실한 불교신자이고 승려들이 일본 외교를 맡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요마사가 답한 편지에는 ‘대명국(大明國) 유 도독부(劉都督府)께서 금강산(金剛山)의 대선사(大禪師)를 왕림하게 했으니 한없이 기쁘다. … 옛 선불(禪佛) 같은 분과 금석(金石)같은 교계(交契)를 맺었

寺)·만주지(萬壽寺)의 총칭

34)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 『갈등치유론』(한국학술정보, 2012), p.151

35) 『선조실록』51, 선조 27년 5월 6일(계미)

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sup>36)</sup>고 했다. 기요마사는 유정의 인품과 법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유정이 시문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기에 기요마사를 비롯해 일본인들이 종이를 가져와 글씨를 받아갔다. 유정이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탐적사로 일본 본토로 들어가 조선과 일본과의 강화를 논의하는 데는 기요마사와 닛신의 역할이 컸다. 『선조실록』에는 ‘유정이 3차례 기요마사와 회담을 가지면서 큰 소리 치며 굴하지 않았는데, 기요마사가 이를 매우 좋게 여겨 매양 유정의 사람됨을 일본인에게 칭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인들이 송운의 이름을 전해가며 칭찬했다.’고 했다.<sup>37)</sup>

일본의 군신과 백성은 불교를 신앙했고 송운의 이름이 기요마사에 의해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신유한은 ‘그러기에 유정이 일본에 갔을 때 저들은 부처님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려는 습속으로 이르는 곳마다 환영하여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절하며 부처님이라 칭하고 조사님이라 칭하게 되었으니 형세가 진실로 그러했다.’<sup>38)</sup>고 기록했다.

1604년 유정이 탐적사로 대마도에 들어갔을 때 대마도 외교를 담당했던 겐소를 비롯해 반시츠(萬室) 등의 승려들을 만났다. 유정이 가져간 예조의 書契에 ‘다른 일은 중국 조정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왕래하며 사고파는 일만은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고 했다.<sup>39)</sup> 대마도와의 교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을 뿐 通好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0)</sup> 유정의 공식 업무는 일본 군국을 유람한다고 핑계하고 그 지방의 인심을 두루 살피고, 자비의 종교를 활용하여 잡혀간 백성을 모두 되돌려 오려는 것이었다.<sup>41)</sup> 교역을 허화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마도는 조선인 송환을 약속했으므로 유정의 파견 목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마도주인 요시토시는 곧바로 家老人 시게노부를 에도(江戸)로 파견하여 이에야스에게 보고했다. 이에야스는 내년 봄 교토에서 송운대사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본토에 들어가서는 엔코우지(圓光寺) 산요 겐기츠(三要元佺, 1548-1612), 쇼고쿠지(相國寺) 세이쇼 쇼타이(西笑承兌, 1548-1607), 슈쿠로(宿薦)와 같은 외교를 담당하던 五山승려들과 교류했다. 그 외 쇼겐(松源), 교토 고쇼지(興聖寺) 엔니(圓耳), 오쇼(悟初) 등 많은 승려들이 유정과 교류했다. 이들은 시문을 받아가고 그림을 가져와 찬탄하는

36) 『선조실록』51, 선조 27년 5월 6일(계미)

37) 『선조실록』172, 선조 37년 3월 14일(갑자)

38) 『奮忠紆難錄』(『韓佛全』8, p.100b-c) 令彼慕佛求福之俗 所至驩迎 攢手至頂 稱佛稱師 勢固然矣

39) 『선조실록』187, 선조 38년 5월 15일(무자)

40) 『선조실록』189, 선조 38년(1605) 7월 5일(정축)

41) 『奮忠紆難錄』(『韓佛全』8, p.100b) 托以盤游郡國 遍觀其地人心 又以慈悲之教 欲得盡刷俘氓

글을 받아가기도 했다.

유정은 교종과 선종에 모두 뛰어난 승려였고 詩文을 잘 하고 글씨를 잘 썼으므로 일본승려들은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유정을 존경했다. 일찍이 유성룡(柳成龍, 1542-1607)도 ‘시에 매우 능하였고 眞草를 잘 써서 총림에서 이름이 났다.’고 평가했다.<sup>42)</sup> 허균(許筠, 1569-1618)도 ‘유정스님은 당나라 아홉 승려의 흐름을 익혀 시가 매우 맑고 고고하다.’고 평가했다.<sup>43)</sup> 이에야스의 장자인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579-1632)도 유정을 찾아와 선학에 관심을 보이며 한마디 말을 해 달라고 조르기에 시를 지어 주기도 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유정의 글씨를 받아갔으며 그들은 유정의 필적을 매우 소중한 재화로 여겨 소장했다. 1719년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유한은 ‘五山 車天輅는 문장으로 이름 날려 만력 신묘년(1591)에 통신사 제술관으로 일본에 갔을 때 詩墨을 휘둘러 쓰는 게 비바람과 같았다. 그런데 왜의 속인들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한마디 말도 들을 수 없다. 송운대사의 필적만 오직 바다 밖에 전해지니 세상의 이른바 不朽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지 기예에 달린 것은 아니구나.’라고 했다.<sup>44)</sup>

이에야스가 유정을 만나고자 한 것은 정식 사신은 아니지만 강화의 실마리를 풀 기회로 삼고자 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고승으로 명성이 높은 유정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유정이 후시미조(伏見城)에서 이에야스와 히데타다를 만나 회담을 나눔으로써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은 실마리를 풀었다. 허균은 석장비에서 ‘대사가 家康을 만나서는 “양국의 생령들이 오래도록 도탄에 빠졌으므로 내가 널리 구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 家康도 불교에 귀의한 자였으므로 대사의 말을 듣고는 신심을 내어 부처님처럼 공경했다.’<sup>45)</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야스는 유정과의 회담에 매우 만족했다. 유정과의 회담 주선한 공덕으로 소 요시토시는 에도막후 아래에 있던 조선과의 국교에 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 공적으로 히젠(肥前)에 2,800석의 영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00석은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가신인 야나가와(柳川)에게 주었다.<sup>46)</sup>

사명당 유정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수행하던 중 1607년 이에야스의 국서에 대한 회

42) 柳成龍, 『西厓集』4(『한국문집총간』52, p.468d) 「松雲」 頗能詩善眞草 有名叢林中

43) 『惺所覆瓿藁』26, 附錄1, 「鶴山樵談」. 惟政山人 學唐九僧之流 詩甚清苦.

44) 『奮忠紆難錄』(『韓佛全』8, p.90b) 車五山天輅 以文章自名萬曆辛卯 以通信製述官 到日本時 揮洒詩墨 必如風雨 而倭俗今無識其名者 求其片語而不可得矣 松雲筆跡 獨傳於海外 世所謂不朽在人 而不在藝也.

45) 「석장비」(『韓佛全』8, p.76c) 見家康備言 兩國生靈 久陷塗炭 吾因普濟而來 康亦歸心釋教者 聞而發信心 敬之如佛.

46) 山本博文, 앞의 책, p.19

답과 끌려간 동포를 쇄환하기 위한 回答兼刷還使가 일본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겐기츠(元佺)·쇼타이(承兌)·겐소(玄蘇)·슈쿠로(宿蘆)에게 편지를 보냈다. 안부를 묻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소개하고는 지난 번 일본에 간 이유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인데 가보니 조선인이 다른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치 물과 불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송환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많으니 대장군에게 부탁해 모든 조선인들을 돌려보내 달라 부탁했다.<sup>47)</sup> 이역에서 고생하는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끝없는 자애심과 연민을 읽을 수 있다.

훗날 신유한이 사명당 유정의 임진왜란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침내 교린과 화의를 성립시키고 백성의 생명을 건졌다. 그가 돌아와 조정에 보고한 뒤에 비로소 통신사를 보내 옛날처럼 친목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송운대사를 보낸 일은 참으로 상책이었다.’고 평가했다.<sup>48)</sup>

## 2. 일본 외교승

한국은 승유억불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의 신분이 낮았으나 일본은 불교를 신앙하면서 외교의 실무를 고승이 맡고 있었다. 일본 아시카가막후(足利幕府)<sup>49)</sup>는 内政·外交를 담당하는 고문으로 선종의 승려들을 앉혔다. 내정에는 통치 이념을 명확히 하고 규범을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권력담당자인 쇼군(將軍)과 쇼군의 보좌역인 교토에 있는 유력한 수호자인 다이묘가 이들 선종 승려를 중용했다. 또 외교에 있어서도 외교문서를 기초하고 외국에서 온 문서를 해석하고 내외의 책과 과거 사례들을 조사하여 일정한 방침을 내놓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다.<sup>50)</sup>

임진왜란 당시 기독교 신자인 유키나가도 승려인 겐소와 타케(竹溪)와 덴카이(天荊)<sup>51)</sup> 등을 대동했으며, 기요마사는 닛신과 자이텐(在田)과 덴유(天祐)와 세이칸(淸韓) 등을 대동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은 안코쿠지(安國寺) 에케이(惠瓊, 1539-1600)를, 모리 데류모토(毛利輝元)의 부장인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는

47) 『奮忠紓難錄』(『韓佛全』8, p.99b) 曩時余既以普濟爲任 而前去則朝鮮赤子之陷異域者 譬猶墊溺水火 不此濟導 而心何憊焉 將軍初欲有意刷還 而竟爲不然 余乃空手而還 今因有使行 語及此耳 唯兄善報大將軍 盡刷其時之不施者 無食前言

48) 『奮忠紓難錄』(『韓佛全』8, p.100c) 畢竟講成鄰和 拯濟民命 待其歸告 朝廷而後 始遣通信使 修睦如故 當時遣松雲一歟 誠得上策

49) 무로마치(室町) 幕府의 다른 이름. 1336년-1573년까지 일본 중세를 이끈 두 번째 무사 정권.

50) 仲尾 宏, 앞의 책, p.42

51) 1592년 3월 13일부터 1592년 8월 10일까지 일본군 치하의 한양 생활을 기록한 『西征日記』가 있다.

슈쿠로 가쿠(宿蘆俊岳)<sup>52)</sup>를, 오타 가즈요시(太田一吉)는 게이넨(慶念, 1534-1611)<sup>53)</sup>을 대동했다.

훗날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유한은 대마도의 문서로서 우리나라에 보낼 것과 우리 조정의 답하는 글은 반드시 장로 앞에서 열어 보인 뒤 書狀으로 본국에 바친다고 했다.<sup>54)</sup>

이들 승려는 불교와 유학에 대한 학문이 깊고 역사와 문화에도 밝았고, 한시와 한문에 능통하여 한자로 필담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정이 일본으로 갈 당시는 교토 五山の 제도가 정비되어 오산의 승려가 막부의 외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사명당 유정이 교류한 일본 승려들 가운데 주요 고승으로는 츠시마 세이산지(西山寺) 게이테즈 겐소(景轍玄蘇), 후쿠오카 혼묘지(本妙寺) 닛신(日眞), 엔코우지(圓光寺) 산요 겐기츠(三要元佺), 쇼고쿠지(相國寺) 세이쇼 쇼타이(西笑承兌), 슈쿠로 가쿠(宿蘆俊岳) 등이 있다.

① 겐소(玄蘇, 1537-1611)는 임제 중봉(重峯)파의 선승으로 에이로쿠(永祿) 연중(1558~1570)에 후쿠오카(福岡) 하카다(博多) 쇼우후쿠지(聖福寺) 주지가 되었다. 1580년 쇼 요시시게(宗義調)의 초청으로 일본국 왕의 사신으로 조선에 건너갔으며 이후 대마도에 있으면서 조선외교를 담당했다.<sup>55)</sup> 조선실록을 보면 선조 13년(1580) 조선에 들어온<sup>56)</sup> 이후 선조 22년(1589)에는 시봉승 즈이쑤(瑞俊)와 함께 들어왔고<sup>57)</sup> 선조 23년에 선조는 ‘현소는 왜인 가운데 문자를 알아 시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에 대응하기 위해 문장에 능한 宣慰使를 뽑아야 한다.’고 전교했다.<sup>58)</sup> 선조 23년(1590)에 통신사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겐소가 回禮使였으며<sup>59)</sup>, 통신사가 귀국할 때 함께 나와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조선에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sup>60)</sup> 쇼 요시토시(平義智)와 함께 대마도의 왜인을 관할하며 모든 문자와 논의에 관한 것은 겐소와 타케(竹溪)가 전담했다.<sup>61)</sup>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하고 눈을 대륙으로 향하고 있을 때 겐소의 외교력에 주목하여 외교 임무를 맡겼다. 임진왜란 때 타케 등과 함께 유키나와와 요시토시를 따라

52) 1592년 4월 29일부터 1593년 9월 2일까지 경상도 지방과 개성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宿蘆稿』가 있다.

53) 1597년 6월 24일부터 1598년 2월 2일까지 울산성 전투를 거친 후 쓴 『朝鮮日日記』가 있다.

54) 『奮忠紓難錄』(『韓佛全』8, p.100a), 島中書契呈于我邦者 及朝廷報答之辭 必於長老前開視後狀達本國

55) 田中節孝, 「以町庵」(西山禪寺 자료), pp.7-8

56) 『선조실록』14, 선조 13년 12월 21일(경진)조

57) 『선조실록』23, 선조 22년 6월 30일(을사)조

58) 『선조실록』24, 선조 23년 1월 17일(경신)

59) 『선조실록』25, 선조 24년 1월 13일(경술)

60) 『선조실록』25, 선조 24년 10월 24일(병진)

61) 『선조실록』60, 선조 28년 2월 10일(계축)

종군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유키나가의 진영에서 외교를 담당했다. 유키나가는 천주 교인이었지만 일본은 예로부터 외교문서를 승려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겐소가 외교문서를 담당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조선에 보냈으며, 1604년 유정이 대마도에 갔을 때 맞이했다. 유정을 교토까지 동행하여 이에야스와 후시미쵸(伏見城)에서 회담을 성사했다. 1608년 야나가와 도시나가(柳川智永)과 함께 조선에 들어와 조약을 위한 사전교섭을 하고 이듬해 3월에 다시 조선에 들어가 12조항의 己酉條約을 맺었다. 이것이 에도시대 동안 두 나라의 기본약정이 되었다. 겐소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日本國本光禪師라는 號와 蜀江錦의 9조 가사를 받았으며, 일본 조정에서는 이에야스의 추천으로 선승으로서 최고의 紫衣를 받고 교토 난젠지(南禪寺) 주지와 가마꾸라 겐초지(建長寺) 주지직을 받았다.<sup>62)</sup> 유정과 겐소가 주고받은 많은 시들이 사명당집에 있다.

② 닛신(日眞, ? -1626)은 기요마사가 1585년 오사카(大坂)에 부친의 명복을 위해 혼묘지(本妙寺)를 세울 때 초대 주지로 삼았다. 기요마사가 임진왜란에 참여하자 기요마사를 따라 조선에 들어와 전쟁에 승리하기를 기도했다. 유정이 4차례 서생포 왜진에 기요마사를 만나러 갔을 때 서로 만나 회담했다. 1600년 기요마사가 구마모토(熊本) 영주에 봉해지자 혼묘지를 구마모토로 옮겨 머물렀다.<sup>63)</sup> 닛신은 기요마사가 하동에서 잡아온 여대남을 니치요(日遙)란 이름을 지어 승려로 만들었다. 니치요는 혼묘지 3세 주지가 되어 혼묘지의 중흥에 앞장섰다.

③ 세이쇼 쇼타이(西笑承兌, 1548-1607)는 교토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선의 가르침을 배웠으며 성장해서 쇼고쿠지(相國寺)를 재건해 중흥조로 불린다. 오산(五山)의 최고직인 로쿠온(鹿苑) 승록(僧錄)이 되었기 때문에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의 고문과 외교승의 역할을 담당했다. 국내 법령과 외교문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학문장려책과 사찰행정을 입안하고, 法要 등의 불사를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sup>64)</sup>

④ 산요 겐기츠(三要元詰, 1548-1612)는 큐슈(九州) 사가(佐賀)현 출신이다. 어린 시절 상경해 득도한 후, 일본 최고의 대학인 간토(關東) 아시카가(足利) 학교에서 활동하고 9대 교장으로 활동한 고승이다.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이에야스의 진중에서 수행하며 점서(占筮)로 공적을 세웠다. 이에야스의 측근으로 사찰 봉행의 임무를 맡기도 하고 쇼타이의 뒤를 이어 외교문서의 기초와 후시미판(伏見版) 출판에 힘을 쏟았다.<sup>65)</sup>

62) 田中節孝, 앞의 책, pp.9-11

63) 『本妙寺歴史資料調査報告書 美術工藝品篇』(熊本縣立美術館, 昭和56) pp.3-5

64) <https://ja.wikipedia.org/wiki/%E8%A5%BF%E7%AC%91%E6%89%BF%E5%85%8C>

65) 曾根原 理, 앞의 자료집, p.34

일본에서는 五山승려들이 외교문서를 담당했으나 승려는 세속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진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유정은 탐적사로 일본에 간 승려였고 유정이 만난 외교담당은 일본승려들이었기에 자연 출가 수행자로서 상호이해하고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유정은 禪과 敎에 능통한 고승이었기에 일본승려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 조정에서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3. 조·일 승려들의 교류와 갈등해결 노력

일본 본토에 들어간 유정은 일본 승려들과 만나 禪學과 敎學에 대해 서로 논의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았다. 두 나라 승려들은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불교출가수행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호감을 가지고 존중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평화와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이루기를 꿈꿨다.

유정이 처음 만난 일본승려는 임진왜란 당시 기요마사가 머물던 서생포 왜성에 들어가 만난 외교승 닛신이다. 구마모토 혼묘지에는 유정이 닛신에게 준 글 4점이 남아있는데 1차 회담(1594년 4월 15일)에서 준 2점, 3차 만남(1594년 12월 23일)에서 준 1점과 미상의 1점이다.<sup>66)</sup> 첫 만남에서 준 글에는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나 형기(刑器)는 다르지 않고 마음은 한 가지 법에 있고 같은 스승이라. 석가모니의 참되고 묘한 법이 산과 강이 다르다고 어찌 형기(刑器)의 빼어남에 차이가 있으며 마음이 다를 수 있겠는가. 부디 중문의 가르침을 참구하고 푸른 연꽃세상 주인공을 생각하고 함께 법의 그릇을 이루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오직 스님은 이를 힘쓰시길.’<sup>67)</sup>이라 적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부처님과 조사에 귀의했고 나 또한 중문의 객인데 두 마음이 모두 빈 곳에 있으니 말이 어찌 다르겠는가.’<sup>68)</sup>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묘(妙) 자의 의미를 풀이한 글도 있다. 이는 닛신이 혼묘지(本妙寺) 주지고, 니치렌교(日蓮宗) 소의경전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므로 묘(妙)를 설명했다며 자신과 닛신은 부처님께 귀의한 승려로서 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서로 안면이 있는 3차 만남에서는 ‘그대와 내가 서로 만나는 일은 다른 뜻이 없다. 하하하 살피보라.’<sup>69)</sup>

66) 『本妙寺歴史資料調査報告書 古文書篇』(熊本縣立美術館, 昭和56) pp.44-45

67) 위의 책, p.44. 生雖異國 刑器不同 心在一法 同歸 釋迦眞妙法 豈以山河之異刑器之殊 異其心哉 願斯參究宗門句 又念青蓮界主 同成法器 不亦佳乎 唯師勉之

68) 위의 책 p.44. 君歸參佛祖 我亦宗門客 二心同在虛 語何有違逆

69) 위의 책 p.44. 師與我相見之面目 更無別意 呵々々々々照之

고 했다.

유정의 어록인 『사명대사집』에는 대마도 외교승 겐소와 나눈 시가 여러 편 있다. 9월 9일에 준 시에는 고향을 생각하며 외로운 섬에서 중앙절을 맞이하면서 부평 같은 인생을 노래하고 있으며, 겐소가 禪家 祖派를 그린 두루마리를 가져오자 讚文을 적어 주기도 했다. 대마도에서 유정을 맞이하여 오랜 세월 함께 지냈기에 겐소와 나눈 시가 여러 편 있고 겐소의 시운을 따라 지은 시도 있다. 겐소는 임제종 승려로 유정과 같은 선사이므로 달마대사의 기일에 시를 짓고 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동질감을 가졌다.

본토에 들어가서는 五山の 승려들과 교류했다. 『사명대사집』에는 쇼타이에게 보낸 시가 있는데 ‘비온 뒤 정원은 먼지 없이 깨끗하고/ 버들가지 동풍에 날리는 다른 땅의 봄 / 그 가운데 南宗에 귀 뚫린 객이 있으니/ 세상 모두 취했는데 홀로 깼 사람이로다.’<sup>70)</sup>라고 쇼타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쇼타이의 시운을 따라 지은 시가 4편이나 전하고 있다.

쇼타이를 이어 외교문서를 다룬 겐기츠와도 시를 나누었으며 『사명대사집』에는 겐기츠의 시운을 따서 지은 2편의 시가 있다. 그리고 슈쿠로의 시운을 따 지은 시도 있다. 그 외 많은 일본 승려들이 찾아와 선종의 綱要를 묻기도 하고, 달마도를 가져와 讚을 받아가고, 祖派圖를 가져와 讚을 받아가고, 심지어 꽃을 꺾어와 무슨 꽃인지 묻기도 했다.

유정이 귀국 후 1607년에 일본으로 가는 사신을 통해 대마도 외교승인 겐소, 일본에서 교우했던 五山の 고승들인 쇼타이·겐기츠·슈쿠로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겐소에게는 안부를 묻고 이전에 약속한대로 잡혀간 조선 동포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쇼타이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에는 ‘그대 나라에 이르러 녹원의 대장로인 세이쇼사형, 엔코우장로, 오산의 여러 스님들과 만나 중지(宗旨)를 논하고 오게 된 바를 밝히고 사형 또한 선사(先師)의 정안(正眼)에 욱되지 않았고, 나 또한 같은 종파의 한 맥임을 알아 동해에서 매우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이 또한 오랜 인연이며 어찌 인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sup>71)</sup>라고 했다. 조선 선종은 임제종 계통이므로 본인과 쇼타이 스님과는 같은 임제종 선사라는 걸 말하고 있다. 『수능엄경』의 계송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세계를 받들 것이니 이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겠습니까.’를 인용했는데, 『수능엄경』에는 이 계송의 앞에는 ‘이제 과보를 얻어 보왕(寶王)이

70) 『사명대사집』, 『한불전』8, p.70c 雨餘庭院淨沙塵 楊柳東風別地春 中有南宗穿耳客 世間皆醉獨醒人

71) 『奮忠紓難錄』(『韓佛全』8, p.99b) 遂至貴國 得見鹿苑大長老西笑師兄 與圓光長老 五山諸德 盛論宗旨 以明所從來 兄亦不辱先師正眼 余亦得知同宗一脈 盛光於東海也 此亦宿緣 夫豈人力致之

되어서 이와 같이 항하사 같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는 계송이 있다.<sup>72)</sup> 이는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말이다. 곧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上求菩提 下化衆生)’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출가수행자의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조선 동포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쇼타이는 조선 사신들이 귀국할 때 송운대사에게 회답한 내용이 『異國日記』3에 수록되어 있다.<sup>73)</sup>

유정이 겐기츠에게 보낸 글에는 ‘사형과 함께 달마가 서쪽에서 온 노래를 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두 해가 지났습니다. … 그대 나라에 가서 엔코우 노형과 세이쇼 장로, 오산의 여러 스님들과 만나 임제의현 전사의 광풍(狂風)을 논하여 각별히 종지(宗旨)를 밝혔으니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sup>74)</sup>라고 했다. 겐기츠가 임제종스님이고 유정도 임제종계통의 선사이므로 임제종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슈쿠로에게는 道와 마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물품을 보내고 있다.

일본 외교를 담당했던 승려들이 모두 오산의 임제종 승려였으므로 유정은 일본에 들어가 자연 이들 五山승려들과 만나 시와 글을 주고받으며 문화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았다. 유정이 일본 승려에게 남긴 글들을 살펴보면 자신과 일본 외교승들은 모두 부처님께 귀의한 승려인 점과 임제선을 수행하는 선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귀국한 뒤인 1607년 일본으로 가는 사신 편으로 일본승려들에게 준 글에는 안부를 물으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라며 잡혀간 조선인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계속되어온 조선과 일본의 갈등은 조선 승려 유정과 일본 외교승려들이 두 나라가 바라는 걸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 V. 맺는 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은 왜구의 약탈을 막기 위해 대마도주와 교섭하여 부산포(富山浦, 현 부산시), 제포(薺浦, 현 진해시 웅천동), 염포(塩浦, 현 울산시 염

7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大正藏』19, p.119b) 願今得果成寶王 還度如是恒沙眾 將此深心奉塵刹 是則名為報佛恩

73) 仲尾 宏, 「松雲大師 惟政과 日・朝復交」, 『사명당 유정』(지식산업사, 2000), p.357

74) 『奮忠紓難錄』(『韓佛全』8, pp.98c-99a) 西來一曲子 曾與兄吹之 瞥然如昨 再換春秋 … 前至貴國 得見圓光老兄 與西笑長老五山諸德 盛論臨濟狂風 別明宗旨 不亦多乎

포동) 삼포(三浦)에 왜관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의 무역을 허용하는 회유정책을 폈다. 그러나 전쟁으로 조선무역은 끊어지고 카키츠(喜吉)조약(1443) 이래 매년 조선으로부터 받았던 歲賜米 200석도 물론 끊어졌다. 부산왜관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대마도는 한시라도 빨리 국교를 회복하고 한시라도 빨리 조선무역을 재개하고 싶었다.<sup>75)</sup> 경작지가 적고 쌀은 수확되지 않아 조선무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마도로서는 조선과의 교역이 절실했다.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599년부터 사신을 보내고 잡아간 조선인들을 송환하면서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현실에서 그 누구도 일본과의 강화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여러 차례 사신과 조선인들을 보냈지만 교역을 허락하지 않자 다급해진 대마도주는 조선에 주둔한 명나라 관리에게 일본에 잡혀있던 명나라 첩자를 돌려보내며 조선과 화친하도록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우호관계가 깨어졌으며, 일본과의 강화는 명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조선에 주둔한 명나라 관리들은 일본과의 화친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만 조선의 군신들은 명나라를 핑계되며 일본과의 강화를 미루었다.

1600년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승리하여 일본을 통일한 이에야스도 조선과의 강화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면서 대마도주인 요시토시에게 조선과 通好관계를 맺는 것은 양국의 이익으로 이전의 원한을 잊고 길이 好隣을 맺음이 마땅하다며 이 뜻을 조선에 전하라고 했다.

조선인을 송환하고 사신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요청하는 대마도에 대해 조정에서는 유정과 손문옥(孫文臧)을 대마도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왜적의 使者에게 전달했으나 여러 해를 미루며 보내지 않았다.

1604년 2월 13일 대마도로부터 돌아온 김광(金光)이 상소를 올려 화친을 허락하지 않지 않으면 일본이 군사를 출동시켜 침략할 것이라 말하고, 함께 온 토시마사도 이에야스의 명이라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변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조선은 대마도와의 교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사정을 탐색할 필요를 느끼고 수년간 미루며 보내지 않았던 유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유정은 기요마사의 적진에 들어가 기요마사와 일본 외교승들에게 존경받았으며, 일본인들에게도 송운(松雲)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군신과 백성은 불교

75) 志岐隆重, 앞의 책, p.31

를 숭상하며 오랫동안 일본의 외교문서는 승려들이 맡아 왔으므로 같은 승려인 유정이 일본승려와 만나 외교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유리했다. 관료가 아닌 승려는 세속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양국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다는 인상을 주기에 유정이 적임자였다.

유정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이 사실을 이에야스에게 통보하고 이에야스는 교토에서 유정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에야스는 유정이 국서를 지닌 정식사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유정과의 만남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로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내에서도 고승으로 널리 존경받던 유정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유정과의 회담에 매우 만족한 이에야스는 회담을 주선한 요시토시에게 히젠(肥前)에 1,800석의 영지를 주고, 요시토시의 가신인 야나가와에게 1,000석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은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1607년에 조선은 이에야스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끌려간 동포들을 쇄환하기 위한 사신을 보냈다. 이후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 260년간 안정과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유정이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일본이 불교와 승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기요마사와 이에야스가 불교를 가까이 했다는 점이 두 나라의 교섭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승유억불정책으로 승려의 신분이 미천했으나 일본은 천황과 막부가 불교를 신앙하고 승려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임무를 하는 등 승려를 존경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치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치유를 위해서는 상호이해, 호감과 존중, 의사소통, 꿈 이루기, 공유된 인식과 같은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인을 두루 갖추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할 이들이 바로 두 나라 승려들이었다. 유정과 일본승려들은 정치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했지만 종교적으로는 함께 불교를 수행하는 동지였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마리는 불교였다. 사명당 유정과 일본 외교승들의 신뢰와 동질성이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正藏』19

『奮忠紓難錄』, 『韓佛全』8

「석장비」, 『韓佛全』8  
『선조실록』  
『西厓集』, 『한국문집총간』52  
『惺所覆瓿藁』, 『한국문집총간』74

〈단행본〉

山本博文, 『對馬藩 江戸家奴』, 東京: 講談社學術文庫, 2015  
永留久恵, 『對馬島志』, 長岐: 對馬島志刊行委員會, 2014  
志岐隆重, 『十二回の朝鮮通信使』, 長岐: 長岐文獻社, 2014  
曾根原 理, 『神君家康の誕生』, 吉川弘文館, 2008  
水上泰信, 「可觀院日延上人と香正寺緣起」, 香正寺  
田中節孝, 「以町庵」, 西山禪寺 자료  
「송운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명대사국제학술대회자료집』, 밀양표충사, 2017  
「清正公展」자료집, 鶴屋, 昭和44  
『本妙寺歴史資料調査報告書 古文書篇』, 熊本縣立美術館, 昭和56  
『本妙寺歴史資料調査報告書 美術工藝品篇』, 熊本縣立美術館, 昭和56

〈논문〉

민덕기, 「조선후기 조·일강화와 조·명관계」, 『국사관논총』12(국사편찬위원회, 1990)  
원영상, 「선조왕손 일연상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사연구』6(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이철현, 「사명당 유정의 강화활동을 통해 본 조·일 갈등과 치유」, 『불교학보』81(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仲尾 宏, 「松雲大師 惟政과 日・朝復交」, 『사명당 유정』(지식산업사, 2000)

---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5일, 심사일: 2018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6일

연구자 소개: 이철현

① 전공: 한국불교 / 소속: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

② 관심영역: 사회갈등, 조선시대 유불 갈등

③ 주요논저: 「나옹 혜근의 연구」, 「기화의 현정론 연구」, 「사명당 유정의 명·자·호」, 『붓다의 근본 가르침』(저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저서), 『갈등치유론』(공저), 『교육과 한국 불교』(공저),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공역)

④ E-mail: cheadlee@hanmail.net

---

Abstract

# Activities of Monks to Resolve Conflict between Joseon and Japan after the 16th Century Japanese Invasion of Korea

Lee Cheol-Heon

Dongguk University, Kyungju Campus

From the next yea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appened, the governor of Tsushima, So Yoshitoshi, sent envoys and repeatedly asked for a peace treaty, repatriating Joseon's people. Joseon explained Japan's unilateral aggression broke friendly relations and the peace treaty should be approved by Ming. The government officials of Ming staying in Joseon quietly wanted amity of Japan, but the sovereign and subjects of Joseon delayed peace under the pretext of Ming. When trade was not allowed even after forwarding ambassadors and Koreans, the governor of Tsushima felt pressed and sent captured spies of Ming with message to help friendship with Joseon. He threatened that if the treaty was not achieved, a war would happen again. In 1604, Joseon felt necessity to investigate Japan's conditions and communicate an intention to authorize trade and decided to dispatch Yujeong, postponed for years.

Joseon chose Yujeong as the most fitted person for settlement of discord with Japan. To resolve conflict, building confidence is needed and to make trust, recovering relations is required. For healing connection, factors like mutual understanding, amity and respect, communication, accomplishing dream, shared perception are necessary. The people who possessed these factors and arranged the conflict between Joseon and Japan were the monks of the two countries. Yujeong and Japan monks politically belonged to different group, Joseon and Japan, but religiously were comrades disciplining Buddhism. In Joseon, the social status of monks was humble due to policy that esteemed Confucianism and repressed Buddhism whereas in Japan, the emperor and feudal government believed Buddhism and respected monks so that monks undertook diplomatic documents.

The background Yujeong could participate actively was that Japan had faith in Buddhism

and monks and Japan's power-holders, Giyomasa and Ieyasu, had connections with Buddhism. The confidence and homogeneity of Yujeong and Japan's diplomatic monks could resolve discord between Joseon and Japan after Japan's invasion of Korea in 1592.

*Key words:* Samyungdang Yujeong, So Yoshitoshi, Tokugawa Ieyasu, Kato Kiyomasa, Kaitechu Kenso, Saisyō Syodai, Syuroku Kaku, Sanyo Kenkichu